

전북 제조업 체감경기 한 달 만에 반등

비제조업은 부진 지속... 내수 침체 여전 기업들 "회복 기대 있지만 아직 체감 못 해"

전북지역 제조업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한 달 만에 개선 흐름을 보였지만, 비제조업은 오히려 더 위축되며 업종간 경기 온도 차가 이어지고 있다. 전반적으로는 기업들이 느끼는 경기가 여전히 장기 평균을 밑돌아 본격적인 회복 국면으로 보기는 이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2026년 1월 전북지역 기업경기조사에 따르면, 제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2.2로 전월보다 4.4포인트 상승했다. 2월 전

망지수도 90.7로 4.0포인트 오르며 심리 개선 기대를 반영했다. CBSI는 100을 기준으로 그 미만이면 기업들이 경기를 장기 평균보다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지수가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기준선 아래라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회복" 수준으로 해석된다.

제조업 심리 개선에는 자금사정(+1.9p), 제품재고(+1.7p), 생산(+0.7p) 지수가 영향을 미쳤다. 실제 생산 BSI는 74로 전월보다 4포인트 상승했고, 2월 전망도 더 나아질 것으로

조사됐다. 자금사정 BSI 역시 6포인트 오르며 기업들의 자금 압박이 일부 완화된 모습이다. 다만 매출 BSI는 66으로 4포인트 하락해 수요 회복은 아직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제조업의 체감경기는 더 악화됐다. 1월 비제조업 CBSI는 78.9로 전월보다 1.6포인트 하락했다. 2월 전망지수는 76.3으로 소폭 올랐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심리 하락은 매출(-1.6p)과 업황(-0.8p) 지수가 끌어내렸다. 매출 BSI는 57로 5포인트 떨어졌고, 업황 BSI도 하락세를 보였다. 소비와 서비스 수요가 좀처럼 살아가지 않으면서 내수 의존도가 높은 업종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이다. 기업들이 좁은 가장 큰 경영 여로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내수 부진'이었다. 제조업에서는 내수 부진 응답 비중이 32.8%로 가장 높았고, 이어 불확실한 경제상황(15.2%), 원자재 가격 상승(11.1%) 순이었다.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력난·인건비 상승 부담은 전월보다 커졌다. 비제조업 역시 내수 부진(30.9%)이 1위였으며, 인력난·인건비 상승(18.7%)이 뒤를 이었다. 종합하면 제조업을 중심으로 일부 지표가 개선되며 회복 기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실제 매출과 업황 회복은 아직 뚜렷하지 않다. 내수 부진이 공통된 최대 부담 요인으로 남아 있는 만큼, 지역 기업 경기는 당분간 완만한 회복 흐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오상근 기자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

2월 9일부터 신청...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230만명 최대 25만원

정부가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고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 25만원의 경영안정 바우처를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사업 신청을 2월 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설 명절 이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을 시작해 자금 순통을 띄우겠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과금과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처음 도입됐으며, 올해는 지원 대상을 보다 영세한 소상공인으로 좁혔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2025년 연매출 0원 초과 1

억400만원 미만 △신청일 기준 휴·폐업이 아닌 영업 중인 사업체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소상공인이다. 정부는 약 23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곳만 신청할 수 있고, 공동대표 사업체 역시 주대표 1인만 가능하다. 유흥업, 도박·사행성 업종, 가상자산 매매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바우처 사용처는 총 9개 항목이다.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과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에 사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도 포함됐다. 반면 통신회비는 사용 항목에서 제외됐다.

신청은 전용 사이트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별도 서류 제출은 필요 없다. 신청 시 국민·BC·농협·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카드 등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로 디지털 바우처가 지급된다. /오상근 기자

전북신보, 소상공인 특별 채무감면 상시 시행

전북신보보증재단이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특별 채무감면 조치를 연중 상시 운영한다.

전북신보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이하 전북신보)은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장기화로 채무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특별 채무감면 제도를 상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계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제도에 따라 채무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는 채무자는 연체자에게 해당하는 손해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또 분할상환 허용 기간은 기존보다 두 배로 확대되며, 채무 금액에 따라 통상 2~8년이던 상환 기간이 최

장 16년까지 늘어난다. 연대보증인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적용된다.

특히 그동안 연 8~15% 수준에 달하던 연체이자 면제되면서, 높은 금융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던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신보는 2025년부터 특별 채무감면 제도를 연중 상시 운영 방식으로 전환했다. /오상근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영업점 현장점검 나서

NH농협은행 전북본부가 금융사고 예방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영업점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전북본부는 27일 관내 영업점을 방문해 현금 시재조사와 내부통제 관리 상태 점검을 실시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금융사고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영업점 창구의 현

금 보유 현황과 중요 용지 보관 상태,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내부통제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는 금융사고 유형과 예방 수칙, 규정 준수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는 교육도 병행됐다.

장길환 전북본부장은 직접 점검에 참여해 현장 상황을 살피고 직원들에게 윤리경영 실천과 규정 준수를 당부



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은행, 설 명절 중소기업 특별운전자금 5000억원 지원

전북은행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금융 지원에 나섰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은 오는 2월 25일까지 '설 명절 특별운전자금' 5,000억 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신규 운전자금 2,500억 원과 기일이 도래한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자금 2,500억 원 등 총 5,000억 원이다. 지원 방식은 상업어음 할인과 1년 이하 단기 운전자금 대출 형태로 이뤄진다. 대출 금리는 기업의 거래 기여도 등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해 이자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전북은행 측은 이번 지원이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로 이중고를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금융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물 대기 전 작업으로 탄소 줄인다

농진청, '벼 마르는 썬레질 재배 기술' 저탄소 농업기술 등록

벼 재배 과정에서 농기계 사용을 줄여 온실가스를 낮추는 '마르는 썬레질' 기술이 정부의 저탄소 농업기술로 새롭게 인정받았다.

농촌진흥청은 자체 개발한 '벼 마르는 썬레질 재배 기술'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저탄소 농업기술로 신규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등록으로 해당 기술은 벼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공식 저감 기술로 활용될 수 있게 됐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기술을 적용해 생산한 농산물 가운데 유기농·무농약 또는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에 정부가 '저탄소' 표시를 부여하는 제도다. 농기계 배출량이 해당 품목의 전국 평균보다 적을 경우 인증이 가능하다.

이번에 등록된 마르는 썬레질 재배는 모내기 전 논에 물을 대고 여러 차례 썬레질을 반복하는 기존



'무는 썬레질'과 달리, 물을 대기 전에 마른 상태에서 로터리 작업과 균형을 먼저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후 물을 대고 모내기를 한다. 불필요한 농기계 작업을 줄일 수 있어 연료 사용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도 줄어든다.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 이 기술을 적용하면 기존 무는 썬레질 방식보다 농기계 작업 횟수와 화학연료 사용량이 줄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17.7%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해당 기술은 저탄소 농업기술 가운데 '농기계 에너지 절감' 분야에 포함됐다. /오상근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연구원과 SK온 미래기술원은 26일 서울 종로구 SK온 본사에서 ESS 분야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전기안전연구원-SK온, ESS 공동 연구개발 협약

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성과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공 연구기관과 배터리 기업이 손을 잡았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연구원과 SK온 미래기술원은 26일 서울 종로구 SK온 본사에서 ESS 분야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전기안전연구원과 SK온 미래기술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ESS 성능 및 신뢰성 확보 △화재안전성 평가 기술 고도화 △신규 배터리 소재 개발 △국제 협력 및 규제 대응 강화 등 ESS 전반의 안전성과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전기안전연구원이 보유한 에너지저장장치 연구센터 인프라를 공동 연구에 활용해 ESS 화재안전성 검증 체계를 보다 정밀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최근 주목받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등 신규 소재에 대한 안전성과 성능 관련 연구도 함께 추진한다.

ESS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화재 사고에 대한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저장장치의 구조적 안정성과 배터리 소재 특성에 대한 정밀한 안전 평가 기술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오상근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